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행정신도시의 중심축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00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3월 5일 (음력 1월 28일) 수요일

"비리 인사 예외없이 탈락" 민주 공천 후폭풍 거셀 듯

김홍업·박지원·신계륜·안희정씨 등 배제 대상 포함

통합민주당이 18대 총선 공천심사 기준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비리·부정 전력자는 예외없이 탈락시켜야 한다고 밝혀 공천 심사를 통한 대규모 물갈이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지도부는 개인 비리가 아닌 경우 공천 배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공천 기준 합의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공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박재승 공심위원장은 공천 기준 확정을 위한 회의에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개인비리, 기타 모든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어쩌다가 법에 걸린 분들도 많고 아까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한다면 18대 국회 입성 못지 않게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천 기준이 마련될 경우 김대중(DJ)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비서실장, 신계륜 사무총장, 당내 원로인 이용희 의원, 배기선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희정씨,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이호웅 전 의원, 설훈 전 의원, 김민석 전 의원 등이 줄줄이 예비관문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 같은 박 위원장의 입장에 박지원 실장과 김홍업 의원의 경우 결백함을 공개적으로 항변한 것을 비롯, 상당수 인사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어 탈락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셀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천 기준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통합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공심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공심위는 이날 저녁 최고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논의를 거쳐 최종 공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최종 논의 과정에서 외부 공심위원들과 당내 인사들의 공천 기준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 일각에서는 부정·비리 전력자의 공천 배제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외부 공심위원들이 다수결 투표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 같은 공천 기준이 관철되지 못할 경우 박재승 위원장이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공심위는 공천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심사에 착수, 5일께 단수 신청자 지역과 일부 경합 지역에 대한 1차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거 홍보 포스터 나왔다 제18대 총선을 36일 앞둔 4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한 2종류의 '선거 홍보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시 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촉구하는 이들 홍보 포스터를 5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배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남권 인구 108만 광역도시 뜬다

전남도 2025년까지 목포 등 7개 시·군 묶기로

전남도는 목포 등 서남권 7개 시·군을 2025년까지 인구 108만명의 광역도시로 육성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국제교류·해양관광·조선산업 클러스터 등의 기능을 서남권에 부여하고, 무안기업도시~남악~J프로젝트 도시를 잇는 경전철을 건설하는 등 2순환·6방사형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2순환·6방사형 교통망

전남도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안'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도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5월까지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신안·영암·해남·진도·완도 등 7개 시·군에 3천711㎢이다.

도는 계획안을 토대로 2005년 현재 60만명 규모의 광역도시를 2025년 108만명 규모의 광역도시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이를 위해 ▲해남 화원조선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클러스터▲목포 옥암지구와 무안 남악신도시 등 배후주거축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등 해양관광개발축 등 3대축으로 개발키로 했다.

광역도시는 또 ▲목포IC~북항~신항~대불국가산단~영암 삼호읍~남악신도시~목포IC로 이어지는 1차 순환도로 ▲무안국제공항~신안 압해도~목포 눌도·달리도~해남화원관광단지~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영암역~영산강 변~무안기업도시~무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2차 순환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조선 등 3대축 개발

이를 위해 도는 혁신도시~남악~대불산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무안기업도시~남악~J프로젝트 간 경전철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상·하수도 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체육시설, 물류시설 등과 함께 쾌적한 미래형 공원·녹지 등도 조성하게 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정부 조직개편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도미노'

광주시·전남도 개편 불가피

정부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에도 중앙정부를 모델로 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권고할 방침이어서 광주시와 전남도도 정원감축 등 조직개편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현재 시·도는 공무원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지방교부세·인센티브 지원을 내세워 조직개편·인력감축을 유도할 경우 정부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고위관계자는 4일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방정부의 운영 문제는 전적으로 지방의 몫이지만 중앙정부가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추진한 상황에서 각급 지자체도 그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빠르면 내주부터 부처별 소속기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보훈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광주시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도 후속 조치를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도 자체 조직진단 작업에 돌입하는 등 정부의 조직개편 작업에 대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10일 조직개편을 단행한데다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규정한 공무원 정원의 90% 수준인 2천868명이 본청에 근무, 일단 대규모 감원 수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산하 기관 등이 통·폐합될 경우 조직개편과 소규모 인력감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해수부 폐지 등에 따라 일부 실·국의 기능을 보강·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하지만 공무원 정원의 경우 지난 4년간 오히려 10명이 줄어드는 등 정원을 적절하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인위적인 퇴출 등 더 이상의 감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공무원은 정원에 미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축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새정부의 방침을 무작정 거스를 수 만은 없는 입장이어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제유가·금값 또 사상 최고치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고 금값이 온스당 1천달러 선에 다가서는 등 유가와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관련기사 11면〉

또 국제 쌀값도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아 쌀을 주식으로 삼는 아시아 지역의 정책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속에 달러화 가치가 유로화에 대해 연일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원유나 금 등 상품 투자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지난주 종가보다 61센트(0.7%) 오른 배럴당 102.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장중에는 배럴당 103.95달러까지도 치솟아 지난달 29일 시간외 거래에서 기록했던 103.05달러의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역대 최고치인 1980년의 103.76달러도 28년 만에 넘어섰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4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39센트(0.4%) 오른 배럴당 100.49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나 장중에는 102.29달러까지 상승, 1988년 원유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금 가격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NYSE에서 4월 인도분 금 가격은 이날 지난주 종가보다 9.20달러 오른 온스당 984.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값은 장중에는 온스당 992달러에 거래되며 1천달러선에 근접했다. 금값은 올해 들어 17% 올랐다.

국제 쌀값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태국의 쌀 가격은 지난 주에 1989년 이후 처음으로 t당 500달러대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진도 특산품 홍주에 당뇨 예방 성분 있다

동서의학대학원 연구팀 보고서

진도의 특산품인 홍주에 당뇨 예방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도군은 4일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에 의뢰한 '진도 홍주 항 당뇨 기능 연구 용역' 결과 홍주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 지초(芝草)의 붉은 색에 당뇨 예방과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서의학대학원 연구팀은 2005년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지초 성분에 대한 임상 실험 등을 거쳐 최근 최종 용역 보고서를 진도군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초의 붉은 색 성분은 물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30도 이상의 홍주 같은 알코올에서 잘 추출되며 당뇨 발생을 억제하는 항 당뇨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초의 항 당뇨 효과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면 술에서 항 당뇨 성분을 추출해 당뇨 예방은 물론 치료를 할 수 있는 신약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 민속주인 진도 홍주는 쌀과 보리를 원료로 증류하여 만든 곡주에 지초라는 한약재를 사용, 지초주(芝草酒)라고도 하며 미, 향, 색을 고루 갖춘 고려 시대 이후 최고의 전통적인 술로 유일하게 진도군에서만 전승, 제조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